

‘사계절 꽃 피는 삼학도’ 밑그림 나왔다

목포시 테마경관 사업 박차

소·중 삼학도에 4.4km 꽃길 조성
겨울철엔 세라믹 테이지 꽃 식재
섬 이미지 제고 위해 도개교 설치
친환경 조형 활용 오감광장 조성

목포시가 올해 최대 중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계절 꽃 피는 삼학도 테마경관 조성 사업’의 밑그림이 완성됐다.

사계절 아름다운 꽃이 피는 삼학도를 만들어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3세대가 어울리는 공원으로 탈바꿈시켜 관광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이 삼학도 테마경관 사업의 핵심이다.

소삼학도는 ‘뽕동산’, 중삼학도는 ‘뽕동산’, 대삼학도는 ‘학동산’으로, 3개 섬에 테마를 부여해 각각 꽃섬, 학섬, 학섬으로 조성된다.

16일 목포시에 따르면 삼학도 테마경관 조성계획에는 소삼학도와 중삼학도 수로를 따라 이미 조성된 보행동선을 중심으로 총 연장 4.4km에 걸쳐 꽃이 식재돼 특화된 산책로(꽃길)가 만들어진다. <조감도 노란색 부분>

이 꽃길은 삼학도 섬을 휘감고 흐르는 물길을 따라 걷는다는 의미로 ‘물길 가득한 섬 산책로’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꽃의 테마파크’로 불리는 일본의 히타치 해변공원이 겨울에 아이스틀립으로 유명한 것처럼, 사계절 꽃이 피는 삼학도가 유지되도록 겨울철엔 세라믹으로 제작된 테이지꽃이 녹지공간에 배치된다. 테이지꽃을 식재하는 이유는 평화와 희망, 순수를 상징해서다.

또 삼학도를 찾는 대다수 외지 관광객들이 ‘삼학도가 섬이라는 이미지를 느낄 수 없어 아쉽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계획에 도개교(열리는 다리) 설치

방안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15m 높이의 나지막한 언덕인 소삼학도에 유일하게 흔적이 남아있는 옛 등대가 있던 자리에는 등대 모형의 조형물이 설치돼 포토존으로 활용되고, 유달산과 목포항이 한 눈에 들어와 뷰(경관)가 뛰어난 중삼학도 정상에는 ‘뽕동산 전망대’가 설치된다. 대삼학도에는 삼학도 복원이 갖는 환경적 가치와 최초로 지정된 섬의 날 행사가 열렸던 의미를 담아 이난영공원을 포함한 총 3만2000㎡ 면적에 ‘삼학 천년 숲’이 조성된다.

중앙광장에 조성된 생태연못은 어린이 환경교육과 체험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기능을 보완하고 소원 등지 등과 같은 체험시설을 새로 만든다.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옆 경복도민들의 숲 일대는 기념관과 연계된 상징적인 테마공간으로 ‘평화의 플라워 가든’이 조성돼 가족들을 위한 공간으로 꾸며진다.

목포 내항 바닷가와 접한 매립지(요트 마리나 시설)에는 ‘빛+소리+촉각+향+맛’ 모두를 체험하는 오감광장이 조성된다. 길이가 300m에 달하지만 이렇다 할 시설이 없어 밋밋한 이곳을 4개 구간으로 나눠 바다 태양광발전, 고보 조형 등 친환경 첨단기술을 활용한 조형물을 연출, 추억을 선사하는 이벤트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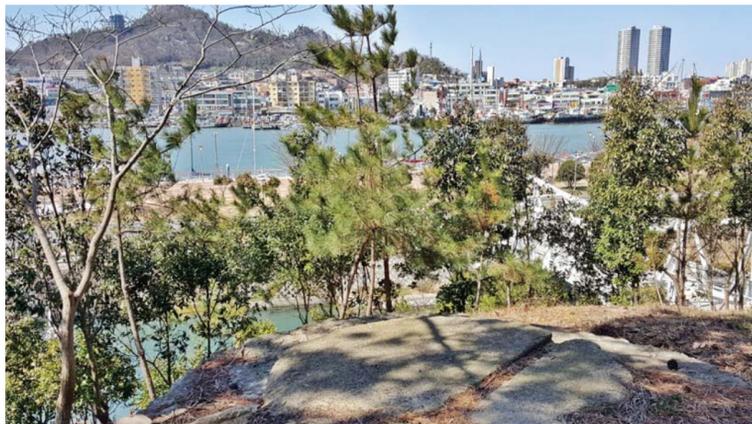
김종식 목포시장은 “삼학도 테마경관 사업은 ‘삼학도 전설이 꽃으로 피어나는 낭만이 있는 섬’, ‘어린이와 가족 모두가 어울려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체험형 공원’, ‘복원된 삼학도 물길·숲길을 따라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공존의 숲’ 등 세 가지 의미가 담겨있다”면서 “관광거점도시 사업비 일부를 투입하는 방안 등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유원지 변경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총 100억원(도개교 제외)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kwangju.co.kr



삼학도 테마경관 사업 기본계획도.



소삼학도에 흔적이 남아있는 옛 삼학도 등대터. 이곳에 등대 조형물을 설치해 포토존으로 활용한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kwangju.co.kr

공영주차장 9곳 무료 개방 코로나19 침체된 경기 살리기

목포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에 나선다.

16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코로나19 상황 해제 때까지 목포시 노상과 유료 공영주차장 9개소(총 633면)를 24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무료 개방되는 공영주차장은 호남(목포역 뒤), 중앙(중앙초등학교 옆), 버스전용(여객선터미널 앞), 원형1(상동 1133), 원형2(상동 1130), 동아(상동 868-5), 트윈스타 행정타운(목원동), 남교가변(수문로), 남교(남교동 57) 주차장이다.

또 지난달 26일부터 시민 편의제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전동시장 주변도로 주차차 허용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하고, 자영업자를 배려해 점심시간 단속유예 시간도 1시간30분에서 2시간30분(11:30~14:00)으로 늘려 운영하고 있다.

목포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불안감 고조로 전동시장 및 상가 이용객이 급감해 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과 전동시장 주변도로 주차차 허용 및 점심시간 단속 유예 확대를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kwangju.co.kr

신안 암태면 남강선착장 인근에 목포해경 신안파출소 8월 신설

목포해양경찰은 천사대교가 개통되면서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신안군 암태면에 오는 8월(가칭)신안파출소를 신설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설 신안파출소는 목포해경이 운영하는 7번째 파출소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진기지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현재 목포해경은 영광, 흑산, 지도, 진도 등 6개 파출소를 운영하고 있다.

신안파출소는 암태면 남강선착장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다. 이 곳은 연안-내해 수역의 중간 교두보로 관내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하는데 최적지이며, 해상물류, 여객운송과 해상교통 안전관리 업무에 효율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지니고 있다.

신안파출소는 자은-암태-팔금-안좌-비금-도초(일명 신안 다이아몬드 제도, 약 1652km) 등의 연안해역을 관할한다. 항포구 71개소, 대형 신고소 13개소, 해양중사자 2619명 및 어선-다중이용 선박 1000여 척을 안전 관리하게 한다.

정영진 목포해경서장은 “올 8월 출범을 목표로 임시 사무실 공사와 인력·장비 배치 등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해양안전 인프라 구축을 통해 파출소 관할 해역의 빈틈없는 해양치안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입체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남만항구 목포 버스킹 대폭 확대...공연기간 7개월·횟수 90회로

올해 목포 버스킹 공연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대폭 확대된다.

목포시는 기존 5개소에서 하던 버스킹 공연을 2개소로 집약해 내실을 기하고, 공연기간도 기존 5개월(4~6월, 9~10월)에서 7~8월을 추가해 7개월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연 장소는 2곳으로 줄어들지만 공연 횟수는 지난해 29회에서 올해 90회로 3배가량 늘어난다.

또 지역문화예술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자율 버스킹 존’이 조성되고 올해 특별기획 프로그램의 하나로 ‘전국 버스킹 경연대회’도 펼쳐진다.

목포시에 따르면 그동안 노적봉 예술공원, 근대역사관 1관, 평화광장, 북항 노을공원 등 5곳에서 열었던 버스킹 공연을 올해는 삼학도 항구포차와 근대역사관 1관 입구(개항문화거리광장) 등 2곳으로 집약한다.



지난해 4월 노적봉 예술공원에서 남만항구 버스킹 첫 포문을 연 신유식의 소프라노 색소폰 연주 모습.

삼학도 항구포차는 매주 금·토요일 오후 7~9시까지, 근대역사관 1관 입구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후 2~4시와 일요일 오후 2~4시(자율 버스킹) 등

매주 4차례씩 열린다. 올해 남만항구 목포 버스킹은 100여개 팀이 참여해 연간 90회 개최될 예정이라는 게 목포시 관계

자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목포시 문화예술과가 지난달 버스킹 참가자를 공개 모집한 결과, 139개 팀(목포 45, 광주·전남 25, 서울·경기 58, 기타 지역 10)이 접수했다. 이들 가운데 평가를 거쳐 A와 B 등급으로 나눠 각각 52개 팀을 선정했다.

공연기간이 확대되고 공연 횟수도 대폭 늘어나면서 추가로 1억4200만원의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목포시는 내다봤다. 지난해에는 81개 팀(지역 39, 관외 42)이 참여, 총 29회 공연을 펼쳐 6192만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구체적으로 노적봉주차장 11회, 근대역사관 3회, 평화광장 4회, 북항 노을공원 4회, 목포역 7회 등 29회가 열려 누적 관람인원은 2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우천으로 5회는 취소됐다.

한편, 목포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본예산 9000만원 외에 추가로 1차 추경에 1억4200만원을 편성해 심의를 요청했지만 시의회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일부가 삭감됐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kwangju.co.kr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전국 3대 명당으로 꼽히는 보성을 아십니까?
그 곳에 수목장이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장부터 안치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061)322-6183